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國府時間附로 (十九日夕六時까지) 蔣氏釋放要求!

國府硬軟兩派長時間論戰後 張에게强硬決意打電

【南京十九日發同盟】國民政府首腦部는 蔣鼎文氏가 携行한 蔣介石氏의 信書及 蔣鼎文氏의 現地觀測을 中心으로 昨夜와 今朝二回 重要會議를 開하고 審議한結果 張學良에 對하야
一、中央의 威嚴尊重을 爲하야 釋放의形式을 取하지안코 蔣介石氏를 自發的으로 南京에歸任시킬것
二、十九日午後六時까지 蔣介石氏의 自由를 回復시거저안는때는 中央은 곳 總攻擊을 開始할것
의 强硬決意를 打電하엿다 張學良으로부러의 返電은今日夕陽에 到着할것으로 期待되는데 緊迫한時局은 이에 右냐? 左냐? 의 重大轉換을 招致할것으로 一兩日中의 局面動向이 가장注目된다

社說

日蘇漁業條約 調印問題

一

日獨防共協定成立으로 日蘇關係에잇서서 新事態가 發生되다는 理由로 去十一月二十日에 調印을 豫定이엿든 日蘇漁業條約은 蘇聯側의 突然한 調印延期通告로 그間一個月間이나 停頓狀態를 繼續하게되엿다。여게對하야 本條約의 假調印에 批准까지한 [illegible]側에서는 政府의 無能을 攻擊하는同時에 對蘇强硬政策을 主張하며 政黨其他一般國民도 政府의失態를 非難하게되엿는데 外務當局에서는 日獨防共協定은 「콤이테른」을 對象으로 한것이오 蘇聯政府와는 關係가 업스므로 日蘇國交上에는 아모 新事態가 發生될理가 업다는것을 主張하야 蘇聯側을 說諭하여보앗스나 元來「콤이테른」괴는 同心一體로 생각하는 蘇聯政府는 日本側說諭를 傾聽치안코 依然 어러가지口實로 條約調印에 不應하므로 이에 日蘇國交關係는 惡化되려한다。

二

新任駐蘇重光大使는 赴任以來 去八、九、及十四日 三回에 亘하야 리트비노프蘇聯外務人民委員長을 會見하고 漁業條約調印遲延은 日本國內輿論을 刺戟하는同時 日蘇關係를 惡化하는것이라고 指摘하고 卽時調印을 促省하엿는데 此에對하야 리트비노프氏는『日獨防共協定을 締結하면 蘇聯邦의 輿論을刺戟하리라는것은 日本에서 모를理가업다。더욱이 東京駐在유레니에프大使로부터 日獨協定이成立되면 日蘇關係改善에 打擊을 與하리라고 事前에 警告하지안엇는가』고 逆襲的答辯을하엿고『諸條件에對하야는 이미 交涉이完結된것은 事實이나 交涉의實際에對하야 蘇聯政府는 最終的判斷을내릴 權利가잇다』고 버티고잇스므로 外務當局은 十九日다시 重光大使에 訓令하야 萬若 蘇聯政府가 어데까지든지 調印을遲延시긴다면 日本政府는 포츠마스條約의 旣得權에依하야 漁業權益을 擁護할決意가잇다는 强硬한態度를 提示하게되어 이에 問題는 一層 더重大化하게되엿다。

三

北洋에 잇서서의 日蘇漁業問題는 오래前부터 말성이만튼바 一九三二年 八月十三日 廣田、카라한交涉의 成立으로 正式調印을 보게됨에따라 從來의 紛爭은 因하야 一掃된 感이잇섯스나 一九三三年에 루-블換算問題의 再紛糾로 因하야 다시問題가시끄럽게되엿다가 結局 이問題도 未久에 解決되고 그後些少한紛爭이 업든것은 아니나 大體로 平穩無事히 지나왓다。그러나 一九二八年의 日蘇漁業新協定의 有效期間이 五個年 卽 今年五月末으로써 滿期되게되엿스므로 日本政府는 條約改訂의 必要를느끼고 여긔 昨年度初부터 그準備에 着手하야 日蘇漁業條約改訂委員會를 設置하고 現行條約의不備缺陷을 是正하는同時에 그權益을 永久히確保하려는 精神下에 進行하여왓는데 이번改訂條約의 內容이 發表되지 안햇스므로 어떠한程度로 妥協이되엿는지는모르나 如何튼 兩國間折衝이 圓滿히成立되어 假調印까지 보게되엿다는것이 日蘇漁業條約에關한 過去와現在의 由來이다。

四

이와가티 比較的順調로 進行하야 結實的段階에까지 이르게된 日蘇漁業條約은 最後의段階에와서 上述한바와가티 蘇聯政府의 調印無期延期通告로 停頓狀態에 빠지게되엿다。蘇聯政府는 日本側의說諭을 逆襲的答辯으로 無視할뿐아니라 重光大使와 리트비노프氏와의 會見內容은 一方的으로는發表치안키로 約束하엿슴에 不拘하고 그約束을 깨트리고 一方的으로 正式發表를 하는等 挑戰的態度를 示하고잇는데 此에對하야 外務當局에서 어더 明한決意 [illegible] 꼿까지 [illegible] 調印을 拒絶하는 [illegible] 마스條約에依하야 自由出漁를 [illegible] 게된다면 現在의 蘇聯側에서 [illegible] 狀態로보아 蘇聯側에서 此事態를 [illegible] 過할는지가 疑問이므로 事態는 [illegible] 에 따라서는 重大한 [illegible] 를 招來할것으로 보이는데 日本側의 最後的決意通告에 對한 蘇聯側의 回答內容은 크게注目된다。

德王停戰通電

綏遠軍局部的撤退

【北平十九日發同盟】蒙古軍總司令德王은 十八日附停戰通電을發함과同時에 全軍에對하야 停戰命令을發하엿다 德王은 停戰通電發令과同時에 綏遠省主席 傅作儀氏에對하야 綏遠軍의 原駐地撤退를要求하엿다 綏遠側에서는 西安事件으로將兵에 全然戰意가업는此際이라 停戰通電에應하야 十八日爲先前線에 停戰命令을發하얏는데 今明日中에는全線에命令함과同時에 局部的撤退를開始할것으로 推測된다

通電理由

【北平十九日發同盟】內蒙軍은戰線을短縮하고百靈廟奪還의機를엿보고 잇섯는데 西安事變의報가傳하매 十五日德化에서 總司令德王、副司令卓世海 第一軍長李守信、大漢義軍總司令王英等內蒙軍最高首腦者集合、協議한結果『蔣介石氏는 蒙古民族의 敵이나 이미赤化한 學良에게害를 當한것은 同情할것이다 我等은 防共精神에 依하야斷然張學良軍과 共同戰線을 取할것은 아니다』라는 德王의大義名分論에 首腦者는 感動하야 爲先 傅作儀氏에의 綏遠軍撤回勸告에對하야 國民政府로부터 冀察政權에對하야 停戰通電을發하게 되것인데 德王의英斷은 蒙古復興의盟主로서 各方面의讚仰의 的이되여잇다

兩內親王殿下 多摩御陵參拜

【東京電話同盟】照宮、孝宮兩內親王殿下께서는 十九日 午後一時十分 藤井御養育掛를隨하시고 女子學習院御出門、多摩御陵에 나압시사 恭遂히御拜禮、午後三時四十分 同所御發 吳竹寮에 御歸還하압시엿다

秩父宮同妃兩殿下 新議事堂御參觀

【東京電話同盟】秩父宮殿下께압서는 妃殿下御同伴、十九日午後二時新議事堂을 御參觀하압시엿다 殿下께압서는 落成式當日은弘前에 御勤務中이심으로 今日까지御參觀의 機會가 업스섯든것이다 此日議會開會準備에 奔忙한諸員의 勞를 御念慮하사 御微行으로 나압시사 議院側으로서는大端히 恐懼하야 長貴族院書記官長、小林同庶務課長이 御案內하고 大藏省 營繕管財局吉武技師의 御說明으로 約一時間에亘하야 院內를全部御參觀하압시엿다

西安事變과中國의今後

人民國民兩戰線의 對立抗爭의表現?

⑤ 李元坤

◇ 西安事件이 一次 世上에傳播되자 過激한 消息通은 卽時때를놋기지안코『混亂中國의再現』이니『群雄割據의戰國時代出現』이니 特殊活字題目下에 中國에 危機迫到를 大書特書하야 報道하엿다。特히今回事件의 動機가 單純히張學良一個人의 怨恨에서 出發한 蔣氏에對한 報復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國民政府 그裏面에는國民政府의內政外交에對한 重大改革을 包含한 政治的意圖가伏在하여잇다는것으로 보아저날리스트의 銳眼에 邊境各地에散在한 異流軍閥과 同床異夢으로 再起를 꿈꾸는 國民政府部內反蔣要人의 身邊에 集注되는것도 決코 偶然한일이안이다。反蔣軍閥과 失意政客들의 動靜에對해서도 亦是 報道와 觀測이 區區하야 廣西派의 中央支持通電이 新聞에報道되지 一週日이 채지나지못한 今日에와서는 廣西派의討蔣反對說이 傳하고 內蒙古軍의 乘機進軍說에뒤니여 中央支持通電說이 報道되고 馮玉祥氏의 歎息說에 뒤니여 討張軍事變桶에 參劃하고잇다는等正反對의 뉴-쓰를 傳하는等事態의 眞否를 捕捉키 難한現狀이다。果然 一部의 觀測과가티 今回의西安事件을 動機로中國은 中央政權沒落 直後의混亂狀態를再現할것인가? 一九二六年北伐宣言後 滿十年間 群小軍閥을 掃蕩하고 共軍을 江西本據로 모라내고 西南을 平定하고 北中將領을 懷柔하기에 成功하야 姑에 統一政權으로서의 面目을具備하게된 南京政府는孫文逝去直後의 廣東政府의運命을또다시 反復하게될것인가? 그리하야 中國은 統一코-쓰로부터脫線하야再次動亂과同胞相殘의 渦中에서 今日의 西班牙의前轍을 밟게되며 列國의 陰謀干涉의 溫床으로 한거름나아가 極東風雲의 低氣壓圈에로까지 轉落할것인가?

◇ 中國의 將來를 豫測하기는死後의 世界를 豫測하기보담도 困難하다는 말이잇다。滿洲事變後『國土를 ×에게 開放하고 不戰自退한 張學良을處罰하라』는 一般의 輿論을 排擊하고 그로하여금 今日의 地位나마 保全케한 蔣介石氏가張學良에게 監禁될줄을 누가豫測하엿스며 國民政府가 張學良의 쿠-데타로 今日과가튼難境에 陷할것을 누가 夢想이나햇스랴?

中國의 將來를 豫測하기困難한것은 國土가 廣闊하고多數의異民族을 包括하고잇는탓도될것이나 그根本理由는 政治組織에 잇슬것이다。蘇聯은아모리 國土가 廣闊하드라도強力한 中央集權制의 政治機構가 確立되엿기때문에 비록反蘇陰謀와 反政府策動이 非一非再하엿스나 今日까지 그根本機構에는 何等變動이 업서왓스며 米國은 一國內에多數의 異民族을 統合한 國家로되 獨特한 地方分權制의圓滑한 運用이 實施되기때문에 비록 南北戰爭과가튼大動亂의 全國을 震撼케한 일은 잇슬망정 獨立後 今日까지 主權그自體에는 何等動搖가업지아니한가 南京政府는 昨今兩年間 蔣介石氏配下에 軍權 財政權外交權을總攬하야統一政府로서의 機能을 發揮할수잇는 領域에接近하엿다할지라도 中央政府部內에는 아직도親日派니 親蘇派니 歐米派니하는 異流를包含하고잇는 關係로 機會잇슬때마다 그들의 策動이 內政外交에 反映되여 統一을缺케하는 弊端이 업지안코地方에는 아직도 中央의 威令이 미치지안는곳이 만허 失職政客과 殘敗軍閥이 乘機作亂하는 境遇가 잇게됨으로 때로는政權의 基礎조차 疑問視되는 重大事態를 誘致하게된다

『羅馬는 하로에 되는것이아니다』 孫文逝去後 左右兩派의 對立抗爭이 表面化하야 沒落의危機를 傳하든 一九二四年當時에잇서서 國民黨이 北伐을 完成하고 南京에 君臨할것을누가 豫信하엿슬것이며 一九二六年南北에 亘한 反蔣條件가 全國을風靡하든 當時에잇서 누가 蔣介石의 統一成功을 豫斷하엿스랴 一九二七年 奠都以來 今日까지 國民政府가 거러온 過程은 決코 平坦하지안헛다 그러나 難關에 맛나고 苦境에 遭遇할때마다 南京政權의基礎는 더욱 强固하게되고 統治領域도 차차擴大되지안헛는가 이것이 南京政府의 運命인가? 아니다 中國國民의 意思라고 筆者는 斷言한다。軍閥에 밟피고 內亂에 시달린中國國民은 猶太民族이가나안福地를 希求하는것처럼 統一國家를 希望하야 마지안는다。福建人民政府가 倒壞되것이나 今夏 西南反蔣軍兵이失敗된 그原因도 이民意에 背馳되엿다는 一語로 說明할수잇다。張學良쿠-데타의 動機가 어데잇든가 그도 亦是 李濟琛과 陳濟棠의 運命으로부터 처지 안을리라고 누가保證하랴。

中央學良妥協에 日本、重大關心!

外相許大使에 態度表明

【東京電話同盟】張學良의背後勢力은 事變勃發以來判然치안코도國民政府의動向도 明白치안흐므로 日本政府는 靜觀的態度를 繼續하고잇섯는데 蔣鼎文氏의 南京歸還에依하야 南京政府와 張學良間에 政治的妥協空氣가 매우濃厚하게되엿스므로 有田外相은十九日午前十一時半駐日中國大使許世英氏의 來訪을 求하야 果然靜觀的態度를 一擲하고『妥協工作의 推移如何에 對하야는 重大關心을가지는다』는 旨를 明白히하고 南京政府의 善處를 要望하엿다 卽同日會見에서는 爲先有田外相으로 부러 十七日의 貴大使와의 會見에서 말한바와가티 日本政府는 西安事件의 進行에 對하야 重大關心을가지고 注視하고잇는터이나 今日新聞報道에 依하면 蒙者戰死를傳하엿든蔣鼎文氏는 南京에歸還하고、南京政府와張學良間에 妥協工作은繼續하고잇다고傳하는데蔣鼎文氏의 來寧及妥協工作에 關하야 何等情報를 接하지안헛는냐 고質한바 許大使는 今朝外交部로부러 接受한電報에依하야 蔣鼎文氏가 南京에 歸還하엿다는 報告는 接하엿스나 그以外何等通知가업다 日本의 新聞에依하여 비로소알게되엿다고 答하엿다 다음 有田外相으로부터

十七日 會見할際 大略日本政府의 態度는 말하엿스나傳하는바와가티 南京政府와 張學良과의 妥協工作의 推移如何에 依하야는 自然重大關心을갓지안흘수업다 此點을充分히諒解하여두기바란다

고妥協工作發展如何에 依하야는 日本政府로서도 靜觀的態度를버릴수밧게업다는 決意를言中에示唆하고 正午會見을終了하엿다 그리고 張學良은 蔣介石氏監禁에際하야 南京政府에 提出한八個條의 要求中에 抗日容共의一項이 明白히 揭載되여잇스므로 妥協工作에當하여도 當然協議의對象이 될것으로 推測되는데 萬一 南京政府가 學良의要求에 屈服하야 抗日容共政策을 實行하게되는 事態를 誘致하면 東亞의 政情安定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것임으로 日本政府로서는 妥協工作進展을 默視할수업다하야 右와如한 重要意思表示를 行한것인데 此에對한南京政府의態度는자못注目된다

學良麾下買收에 中央、全力注中

【南京十九日發同盟】中央은 蔣介石氏의 歸京을 政治交涉의進展如何에 期待하고 잇는데 一方 學良麾下의 將領買收에 全力을 傾注하고잇다 다시 楊虎城氏에도 努力中이며 百方으로 歸順을 勸告하고 잇스므로 今後西安事件의際와 同一手段으로 學良側의 內部崩潰를 기달리여 一失도 損傷치안코 一擧에大勢를 決하고자 劃策을 繼續하고잇다

閻氏의妥協工作 成功與否注目

兩代表飛機로西安行

【上海十九日發同盟】中國側太原來電에依하면 閻錫山氏의代表山西主席趙戴文 前主席徐永昌兩氏는 十九日朝飛行機로 太原發西安에向하엿다 兩氏는張學良氏와會見하고
一、張學良側의要求는可能한限實現하도록努力할것
二、蔣介石氏釋放後의 張學良氏의生命及 地位는閻錫山氏가責任을지고保證할것
以上二案을 提示하고 蔣氏의卽時釋放을 張學良氏에 對하야說得할 터인데 閻氏의 妥協工作이 成功할지 그與否는 各方面으로부터 注視의 的이되여잇다

【南京十九日發同盟】國民政府側의情報에依하면 今朝八時太原으로부터 西安에飛去한 閻錫山氏代表 趙戴文、徐永昌兩氏는 正午西安에 到着하야 蔣介石 張學良兩氏와會見하고 蔣、張兩氏는 各各兩代表와함께太原에 飛來하야 同地에서 閻錫山氏自身이 參加하야 雙方의主張을 調停하는會議를 열것이다고하는 閻氏의 最後案을 提示할터인데 張氏가 果然此를 承諾할지 그與否는 자못疑問되여잇다

抗日容共? 蔣氏犧牲?

【上海十九日發同盟】十八日南京에歸來한蔣鼎文氏는 蔣介石氏의 書信以外에 張學良으로부러 國民政府에對한 要求書를 携行하고잇는데 國民政府는 蔣介石氏의信書만을 發表하고 張學良의 要求書에對하야는 此를 極秘에附하고잇다 確實한方面으로부터의 情報에依하면 右는 一二日間의 期間으로써 國民政府에 要求를 受諾을 [illegible]하야 萬若承諾되지안는 때에는 卽刻으로 蔣介石氏의 一命을斷切할旨를 宣言하엿다 此에依하야 南京에서는 今日도 早朝부터 國民政府의 全要人이 集合하야 協議하고잇는데 蔣介石氏의 活殺의 鍵을쥐고잇는 張學良에게 進退維谷의 難局에 處한것이라고認定하고 南京中央部는 大端한 緊張을示하고 『容共抗日이냐 蔣氏犧牲이냐』一個의對立된 大問題를 閻錫山과 孔祥熙氏 宋美齡夫人等의 救出派와 何應欽氏等의 討伐派의間에 激히論戰이 이러낫다한다 如何튼지 今日中에 中央의 態度를 決定하야 張學良에 通告가 發出될것으로 豫想되며 國民政府今後의 動向은 이決定如何에 달러서 內外人全部가그關心을集中하고잇다

何應欽氏談

【南京十九日發同盟】余는討逆軍總司令에 任命된 以來中央의 意向에 依하야 國軍을指揮하야 西安에 急迫시켯다 昨日蔣鼎文氏는 十七日附蔣介石氏의書面을 携行하고 西安으로부터南京에 到着하엿는데 그書面中에는『昨日中央軍이渭南을爆擊하엿다고하는데 余는貴下에爆擊停止를 卽時下命하기바라지안는다 最近情勢로보면 余는 七日前에 南京에歸還할수잇슬것이다 故로十九日以前의 絶對로衝突을避하고도卽刻爆擊을 停止하기바란다』고써잇섯다 余는此書를보고 이미前線에電命하야 十九日午後六時까지 暫時爆擊을停止하라고命하엿다 萬若張學良의 [illegible] 全然中央의攻擊을 [illegible] 에잇서서 [illegible] 略의狀態에 關하야 旣定計畫을 遂行하야 徹底的으로 此를 [illegible] 決意이다

張學良氏 部下統制力喪失 蔣鼎文氏談

【南京十九日發同盟】蔣鼎文氏는 國民政府로부터 緘口令을맞고 一切의會見을 拒絶하고잇는데 據聞하건대 同氏는 張學良氏自身의 意嚮은 困難이아니나 學良氏部下靑年將校가 中央의 勸告에 聽從할지 그與否에 多大한不安을 感하고잇다 張學良氏는 바야흐로 部下에 對하야 統制力을 完全히 일코잇는 旨를 昨夜國民政府首腦部에서 述하엿다하며 蔣介石氏今後의 運命에 對하야 國民政府側의 不安은 조금도緩和하지안헛다

米買入豫定數量 五十萬石으로決定

十九日農林省發表

【東京電話同盟】農林省發表 政府는 今回米穀業者買替하기 爲하야 籾換米로서 左記要項에依하야 日本米買入을 行하기로 決定하엿다
一、買入豫定數量 約五十萬石으로하고 右買入豫定數量은 各[illegible]
二、買入時期 買入事務所共通하야
保證金受付 十二月二十五日
申請受付 十二月二十六日
買入決定 十二月二十八日
三、買入事務所及受渡場所(略)

人事·集會

▲李泳贊氏(平北道會議員)昨日入京市內光化門호텔에
▲朱禎論氏(東京深川區朝鮮基督敎牧師)入京中敎會堂建築人事次來社

ネオトン愛用諸賢에告함!

近日 ◆ネオトン(NEOTONE)에對한問議가頻多함으로 여에紙上을빌려서 簡單하게 말슴드리겟슴니다。

◆ネオトン(NEOTONE)은 일측부터 歐米各國醫學大家에게 盛用됨은 勿論이어니와 東洋各國에서도 各大學病院及 各官公私立病院에서 多年使用하야 其効果의 優秀를 確認바덧스며 効果가 優秀함으로 따라서 强壯劑로 一般大衆에게 常識化되엿슬뿐만아니라 藥効의 優秀를 어떤醫師에게나 保證맛는 世界의優秀强壯劑이올시다

◆ネオトン(NEOTONE)은肺、心、胃、腎、神經等을 特히補强하는作用이有하야 生血、造骨作用이 旺盛하며 人體의生氣及 精力을자아내는聖劑로서

血氣가업고 咳嗽가나며 無力해저는대
全身이 懶怠하고 微熱이 繼續되는대
急性 或은慢性氣管支炎으로 咳嗽와 喀痰나는대
盜汗이 나는대
眩暈이 나는때
胎中으로 衰弱時
產後로 回復이 느질때
가슴이 답답하고 心氣不平할때
神經이 衰弱하야 머리가 흐릴때
口味가업고 元氣沈滯할때
心臟이衰弱해서 脈搏이弱하거나 또는 不整할때
病後衰弱時
衰弱無力하야 體重이 減退될때
些少한 勞力에도 疲困이 甚한體質
虛弱하고 多病한體質
顏色이 蒼白한 貧血症
精神이 沈鬱하고 倦怠症이날때等等에

服用하면 大概特効를 보게됩니다。萬若不幸히도 貴家族中에서 如左한 症勢를가지신분이 게시거든 卽時
◆ネオトン(NEOTONE)에對하야 貴邊醫師에게 相議하시와 本劑使用으로써 貴하고 重한 健康을 한時빨리 恢復하시기 빌고바랍니다。

全國各有名藥房에서販賣
文獻及說明書人體圖請求
即時無代送呈

ネオトン直輸入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上海

包裝
350 瓦入
1,900 瓦入
3,000 瓦入

農地令實施後第三年

背約行爲만업스면 作權移動은不能

原則的으론契約繼續이當然

農村의平和를爲하야地主는自重하라!

契約更新期를압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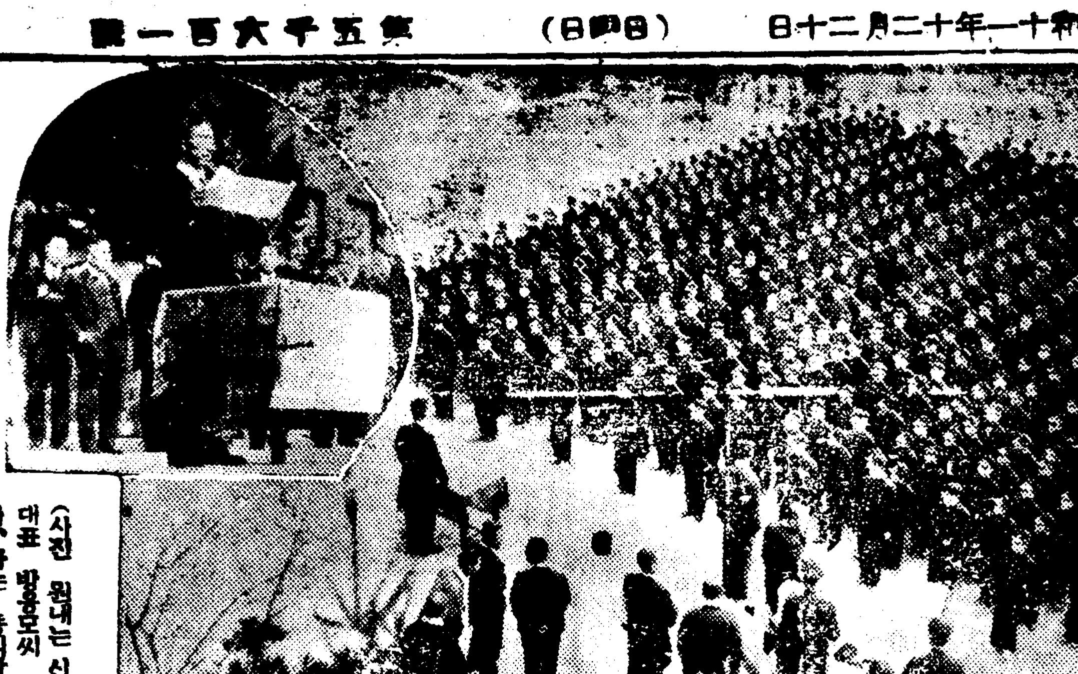
조선농촌의고질이되여잇는지주대소작인관계의악화불평불적으로교정개선할목적으로창설된농지령(農地令)이소화구년사월 이십일부터 실시된 이후 금번 시월시일로서 제삼년에 들어간다 농지령의 규정한바에 의하면 소작권(小作權)은 임대차(賃貸借)의 계약기간을 보통 농작물에는삼년으로 하여잇슴으로 농지령실시후 그전에계약이업든것으로도 그때부터 새로소작계약이성립된것으로간주된다 농지령에의하면 명년사월이십일까지에소작기간이만료되는셈이다 그런데이소작계약에의하면 계약기간은삼년으로되엿스되계약을 다시 갱신(更新)을거절하는데는소작기간이 만료되기삼개월이전 일개년이내에하여야한다는규정이잇서 이규정의 내용을잘리해치못한 지주들은 계약이만료되기삼개월전이면 소작을할수로떼일수잇는것가티생각하고 소작계약의 갱신을 거절(쉽게말하면 소작권을떼이는것)할것가티생각하는모양이다 그러나농지령의내용은 그러케간단히삼년마다 소작인을 가러대일수잇슴만큼되것은아니다 즉농지령은 소작계약의 긔간은 삼개년으로하되 삼개년이 지나는때는 다시 삼개년의 소작계약이게속되여야할것이 원측적으로되여잇다 동법십륙조에 의하면 지주가 소작계약의갱신을거절하려면 그리유로는 소작인이 지주에게대하야 고의(故意)나 또는 악의(惡意)에서 나온배신행위(背信行爲)가잇서야 한다는것으로 소작계약중에 몃가지 계약을 리행치안햇다고 리유의시비도 가리지안코「배신행위」라고하는것은아니다 배신행위 라면 적어도 지주가소작을주어든 목적을달할수업슬만큼 소작인이 지주에게 의부러 해를입혓다던가 하는악덕행위를말하는것이다

그럼으로 이러한 악덕행위가업는이상 네달가티 지주가 함부로 소작권을 떼이어서 이사람저사람에게 주지못하는것이다 그런데 만일이러한경우에 지주들이 리유도 닷치 안는것을가지고 소작계약을 다시삼년동안 계속할것을 거절하는때는 부득이 소작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수밧게업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 계약갱신거절의 수속을 할수잇다고해도 명년사월이전에는 소작권을 떼일수는업다 따라서 지주들이 섯불르게 지금부터 문제를 이르키다가는오는때롱시에 소작인들이 그보복수단으로 농사를 충실히짓지 안코 제리익만 채리게되여 지주들이 더큰 피해를 볼경우가 업지 안흘터이며 지주들이 계약 갱신거절의 수속을 한다면 명년가을 이때야 올흘 것이나 그보다도 농지령의 내용이소작계약을 갱신하는것이 원측으로 되여잇는만큼 용이히소작권을떼이기도 힘들것터러 당국에서는 지방청을 독려하여 소작권의통요방지에 힘쓰고 잇슴으로 지주들은 농촌의 평화를 위하야 소작권문제를 이르키지안흘것이 또농지령에 의하면 소작계약경신여부에대하야 계약만료 삼개월전까지에 지주나소작인간의량편에서 한통지가 업는때는 소작계약이 다시 삼년계속되는것으로 간주하게되여잇다

普成高普經營을

新設立者側正式引繼

今日新設立者의就任式을 校內서盛大히擧行



(사진 원내는 신설립자 대표 방응모씨 취임식사, 하는 동식장)

지난십일월이십일부로 정식으로 시내보성고등보통학교 (普成高普)의 경영권을 인가마른재단법인 고계학원(高啓學院)의신설립자취임식은 십구일오후두시부터 시내보성고보 교정에서열리엿다 신설립자측으로 방응모(方應謨)서춘(徐椿) 고재권(高悌權) 소완규(蘇完奎)오청(吳晴)윤동훈(尹東勳)제씨와 교우측으로부터는 리을(李乙)김교영(金敎英)등제씨가 참석하고 학교직원생도칠백여명이 도렬한가운데김교장(金校長)의 신경영자의 정식인게를 하게됨에깃뿜을 금하지못하겟다는 개회사로부터 식이진행리에 구설립자의 인사를 김교장이 대신전하고 신설립자의소개가잇슨다음 오청(吳晴)씨로부터 고고계하(故高啓河)옹의분루노력의 략력소개가잇섯고 뒤니여 고계하옹의 령을 위하야 이분간의 묵도가잇섯다 그다음으로 금번에 새설립자의중임을 마튼 고계학원 리사장 방응모씨로부터 여러가지 장해가 잇섯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일할게 보성고보를 경영해 나가게되것은 참으로 깃뿐 일이며 그간에 노력한 여러분에게 감사를 마지안는다는것과 학교를 위하야 금후도 힘을 애끼지안는다는 열과성의에넘친 인사가 잇섯다 끄트로 교우를대표하야 김교영(金敎英)씨의 축사가잇슨다음 교가와 만세삼창으로 동두시사십분경에 성대한식을 무사히마첫다

盤石가튼基礎 至極히感謝 校長金敬弘氏談

감격에넘처잇는 김(金)교장은 다음과가치말한다

우리학교가 여러가지 어려운 고비를넘어서 이제 이와가티 튼튼한긔초우헤 완전히 서게되니 어떠케기뿐지 예전어려운때생각까지나서 슬픈생각도 납니다 모도가 방응모(方應謨)씨를비롯한 여러분의 힘써주신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금후언제까지나 끈임업시 힘잇는애호가 잇슬것을 굿게밋슴니다 운운

故高啓河氏도 地下에서滿足 堂任高悌權氏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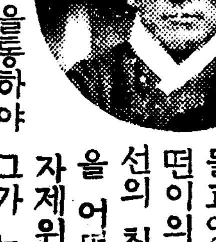
식을굿마치고나서 고고계하씨의 당질되는 고제권(高悌權)씨는 다음과 가튼소회를 피력하엿다

이번 상봉하야 이영광수러운 식에참예하게되것을 마음것깃버합니다 우리문중의 경사는 물론이요 지하에게신고계하씨도만족하실줄로밋습니다 운운

次回長篇小說

그의自叙傳

長白山人 李光洙 作 熊超 金奎澤 畵



만천하 독자로부터 열렬한 환영을받는 장편소설「愛慾의彼岸」도 오는 수삼회로써 막을 다치랴한다。 춘원 리광수(春園 李光洙)씨가 소설게에 단연 제일인자인것은 누구나 인증하는바어니와 항상 병마로인하야 작품에 은 지장을 받는것은 애석한일이다。 춘원은 이미 불혹의역을 넘은지 수년、문화적으로도 로성한 걸작을내이랴는 마음에 바빠서 이번에는 가장 력작을 발표하랴고 서들고잇다。 이번 소설은 이름도 그의 자서전(自叙傳)인것갈이 어떤이의 자서전을 쓰랴한다。 필자는『그의 자서전』을 통하야 조선의 최근세 사회실상을 그리겟다 한다。 춘원은 과연 과거 조선을 어떠케보앗는가。 그 자서전의 주인공 그는 과연 누구인가。 독자제위는 오는 이십이일부터 석간칠면에 날아나는 장편소설『그의 자서전』을통하야 그가 누구인가를 생각해보라。 또 삽화는 웅초(熊超) 김규택(金奎澤)씨로 근래 사게에 단연 이채를 자랑하는이로 자타가 공인하는바다。 이 소설에 이삽화 과연 금상첨화를 이루어다하겟다

작자의말。 여긔 한사람이 잇다。 그는 태어낫다。 어린애의 생활을하엿고 고아가 되엿고 의식을 얻기에 골몰하엿고 행복을 구하기에 골몰하다가 그는 마침내 인생은 무엇인가 하는 큰 의혹과 마조첫다。 그때에는 그의 머리에는 벌서 센터럭이 잇섯고 그의 몸에는 벌서 쇠약과 병이 잇섯다。 그는 그의 인생의 압날이 얼마 길지아니함을 안다。 이에 그는 가만히 지나간 일생을 회상해본다。 이저버렷스면 좋을 괴로운、슬픈、부끄러운、유시호 그리운 과어들이 떠오른다。 이러한 제 자산의 자최에 그는 울고 탄식하고 뉘우친다。 이제 그는 다 더럽고 다 낡아빠진 몸과 맘을가지고 거짓의 껍데기를 벗은 새로운 인생을 차자보랴고 일어선다——이것이 그의 자서전의 요령이다。

그는 일청전쟁에 나서 근세의 조선을 고로고로 구경한 사람이다。 어떤 의미로 보면 그의 일생은 근세조선의 일생일는지도 모른다。 그의 자서전은 근세조선의 한 측면긔록일는지도 모른다。

『그』라는것이 누구며、그와 관련되어 나오는 수많은 남녀가 누구냐。 독자는 그들을 모도 현대에 살아서 움지기고잇는 사람들로만 가정하라。

『그』는 이 자서전에서 사회의 양풍미속에 해를 끼치지않이하는 한에서는 제속을 숨김없이、꾸미지 않고 쓸것이다。 독자는 혹 낯을 가리울 경우가 이사을른지 모르거니와 독자는 잠시 그의 참회를 받는 사승이 되라。 그의 가장 슴아픈것이 지나간 거짓이오、그의 가장 원하는것이 꺼림없는 참이기때문이다。

(사진(右)은 리광수씨와 (左)김규택씨)

來二十二日附로連載

清州에覆面强盜

現金五十圓强奪逃走

【청주】 지난십칠일 오후두시반쯤 청주군북이면[illegible]리(北二面[illegible]里)[illegible]씨집에 복면한강도가 침입하야 현금오십원을 강탈하고 유유히종적을 감추엇다는데 그날오후두시쯤이 신고를접한 청주서에서는 대경하야 석도(石濤)서장 서텐(石川)사법주임이하 형사수명이 즉시현장에 급행하는한편 서원을 총동원하야 물샐틈업시 비상선을늘리고 범인을 엄탐중이나 아모런단서조차 엇지못하얏다는데 그신고에의하면 피해진동은 가진것이 확실하나흉긔는무엇을가진것는지잘알수가업다고한다

崎嶇한運命에서 飜弄되는少女!

두번째賣身된金秋月의哀話

십구일 오후네시쯤되여 부내 서대문서에는 허트러진 머리에 몸자림이 거친 어여뿌게생긴 한 녀자가 허둥거리고 달려와서목메인소리로 하소연한바가 잇서 고요한 그서안팍의 공긔를 흔드럿다 게원이 사실한바대로보면 그는 충청남도례산군례산읍(禮山郡禮山邑) 에잇는 문화려관(文化旅館)에 몸을부처잇는 김추월(金秋月)([illegible])로 례산 읍에서 삼십리가량 떠러진 한가한마을에서 래여나서 거친세상맛을 모르고 순박하게자라나오다가 지난삼월에 자긔고향서멀지안흔″한내″라는동리에사는 리평근(李平根)([illegible])이라는 놈은동가에게 시집을 가게되엿다 그리하여 남부럽지안케 재밋는 신혼생활을하여오면서 매여섬일 살어오든중 천만가리 엇지남편이란놈은 미명이리는 때도가 갑작스럽게 변해지면서 도야나한 그 근방 삼다리(新灘)에 잇는 한회득(卓元福)의(家集)으로 오사원이란 돈에 몰래팔어바리고 말므로 이 뜻밧게 변을 당한 가엽은 여성은 쓰라린 가슴을 부둥켜안은체 그곳서모든 울분과 원한을 참으면서 두달동안이나「술집게집」이라는 간판을 질머진체 참어왓다 한다 그후 그에게는 다행이라할지? 다닥처 오는 운명에 나부긴바되여 다시 전긔문화려관주 잠시 몸부처잇게 되엿는데 이불상한 여성의 약점을자본 그려관주인 리회선(李會善)이가 달게꾀이면서 긔왕이면 자긔집에 잇는편이 어떠나고해서 마침내 그집에서 다시 뜻에업는 작부겸 식모를겸해 고용살리를햇다 한다 그리자 주인 리회선은어떠한생각이 엇섯는지? 김추월에게 서울가면 조흔버리자리를 자벼주겟다고달래므로 마침내 그를 따라서 지난십륙일에 상경하엿는데 긔것 떼리고간다는것이 종로부근 어떤 예창기소개소에다고한다 이에 몸록 정신이난 그는 자긔의 의롭은목이 또 장차의세가 될것을 눈치채우고 마침내 리회선이가 한게 나가사이를름타서 전긔와가티 그소게소를비서나서 경찰에 구해주기를 애원한것이라한다

遞信吏員養成所新築落成式

체신리원양성소(遞信吏員養成所)는 전조선인쇄회사자리인 부내원정(元町)삼정목일번지에 신축중이든바 요지음에 준공되여 십구일에 락성식을 성대히 거행하엿는데 남(南)총독의 고사(告辭)와 체신국장 양성소장의 식사등이 잇섯다。 기지는 노픈지대에잇는 칠천오백구평 (이천륙십평)이층으로 근대식건축물인데 교실에는 우편실연실(郵便實演室) 무선실연실(無線實演室)『타이푸라이터』실연실등이 설비되여잇고 기타위생설비와 난방장치와 전기공사등이 완비한명랑한 교사이다

(사진은 신축락성된 체신리원양성소전경)

喧騷한歲暮의街頭

交通事故만四件

交通安全日面目安在

십구일은 교통안전데이엿지마는 세말의 복잡한 거리에 교통사고가 여긔저긔에서 발생하야 류혈의 참극을 이르켯다

(1) 시내신당정(新堂町)삼백사십구번지사는 김철웅(金哲雄)의모친 리씨(李氏)([illegible])는 십구일오후여섯시쯤에 신당정이백사십칠번지압 길울거리가다가 경성전긔회사왕십리출장소(往十里出張所)직공 리복룡(李福龍)이가 운전해가든 소형(小型)자동차에 바치어 중상을 당하야 생명이 위중하다한다 동대문경찰서에서는 경관이 현장에출동하야 상황을 검증하고 가해자를 취조중이다

◇

(2) 양주군구리면중하리(楊州郡九里面中下里)사는김우식(金禹植)의안해 천씨(千氏)([illegible])는십구일 오후세시오분에 시내 휘경정(徽慶町)삼백이십번지압 큰길울 거리가다가 시내장곡천정(長谷川町)중국인 번춘귀(潘春貴)([illegible])가 타고가든 자전거에바치여 일주일동안 치료바들 상처를 내엿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다양주방면으로 향해가든중 왼편에서 마차가 오는것을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가티 올편으로피하려다가뒤에서 오는자전거에 바친것이라한다

(3) 고양군은평면 신사리(高陽郡恩平面新寺里)도로공부 리천만(李千萬)([illegible])은십구일오후세시반쯤에은평면대조리(大棗里)압큰길에서 황해도재녕군재녕면국화리(載寧郡菊花里)사는 운전수김세웅(金世雄)([illegible])이 운전하여가든 화물자동차에 바치여 가슴과손과발에 시일동안 치료바들 중상을 입엇다 가해자는 황해도로부터 경성으로 오든중 시내남대문통이정목일번지 최선규(崔善奎)라는운전수가 운전해가든 화물자동차가림진강(臨津江)근처에서 고장이나서잇는것을보고 그것을 끌을고 오든중 전긔 대조리에서 장식행렬을맛나 급정거를 하려고핸들을돌리다가 거리ㅅ나무에바치여 나무가 절손되는바람에 전긔피해자가부상하게된것이라한다

(4) 시내황금정사정목일백이십사번지굴운송점(堀運送店)운전수 리천일(李千一)([illegible])은 하물자동차에 솔가지를 가득 실고 십구일오후 여섯시십오분쯤에탑골공원압흘지내가다가 뒤바퀴가 빠저서 정거하고 수리하는바람에 종로쪽으로 가든 전차는 십오분동안이나 정거하여서 큰혼잡을이르켯다

유리窓만바수는

十一歲된게집애거지

상점지청 유리만 깨트리고 도라다닌 게집아이거지「십구일 오후 일곱시반쯤에 종로화신백화점서편 진열창의 시가백여원 짜리 유리한장을 돌멩이로 파손하고 도망하든 녀자거지한명을 종로서원이 붓잡아다가 취조한결과 강원도평강군 둔내면 두원리(平康郡屯內面斗元里)출생으로 주소부정한 김춘자(金春子)(十一)라는 거지아이인대 그는 수일전에도 시내 관수정관수상회(觀水商會)의 유리창 석장과 그부근 자동차부의 수개소에도 역시 돌을던저 유리창을 깨트렷다고 자백하엿다 그는 아마 변태성(變態性)을 가진것갓다한다

普專柔道部

昇段進級者發表

보전유도부에서는 지난십이월십칠일 午後二時에 定期昇段進級式이잇서 師範李景錫氏로부터 四十八名의 昇段進級者를 左와如히 發表하엿다한다 同柔道部는 創設以後三個年에 지나지안흐나 師範以下部員全體의 꾸준한 努力으로 急速한向上을보이어 지난번 延專과의 柔道對抗戰에 榮譽의優勝을하는等 飛躍的發展을 하야 多數한昇段進級者를내이엇다

▲參段金成坤 ▲初段林承日 李昌吉 河禮容 李炳國 ▲初段候補金在洪 崔一桐 金勳起 李弘均 ▲一甲鄭修澤 鄭泰立 ▲一乙李鍾化 尹泳珏 尹炳殷 安晟鐘 ▲二甲李炳基 崔錫圭 李祥夏 嚴翼璿 李春培 鄭寅澈 張樂中 李鶴 ▲二乙 徐正甲 尹夏炳 權寧[illegible] ▲三甲 鄭炳翊 ▲三乙 朴殷成 李圭鉉 朴鍾誥 金基德 尹斗熙 姜龍吉 許二龍 朴桂陽 宋賢錫 ▲四甲 姜永弘 李熙英 金學成 申鳳均 金陽俊 金甲洙 魯成煥 ▲五甲 韓七星 金瑾英 李相龍 尹鐵永 李恒莊

日曜講話

◇基督敎會 阿峴禮拜堂 午前 福音 치엣쓰 氏
午後七時 사랑으로驗合 朱禎國 氏
◇天然町石壁敎會 午前十一時 榮光·平安 朴淵瑞 氏
午後七時 사랑의선물 田義鎭 氏
◇貞洞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예수와人生 金鍾宇 氏
◇中央敎會 午前十一時 信徒의覺醒 沈明燮 氏
午後七時 聖誕祝賀의意義 沈明燮 氏
◇尙洞敎會 朝間 神의最大恩賜 姜泰熙 氏
◇南大門外敎會 午前十一時 크리스마스의뜻 邊永瑞 氏
午後七時 朝鮮敎會의今昔 許泰洛 氏
◇[illegible] 午前十一時 미동의힘 朴[illegible] 氏

醫學講座

醫學博士 伊藤先生推奬

生○器機能의衰弱과 房事過度의疲勞는

前病의根源이되고 人生悲劇의原因이된다

靑春老年할것업시 이人生悲哀에서 울고잇는분들은 모름즉히 이아래 記事를 읽으라 (係)

人生이 늙는理由

노래에『몸은늙어도 마음만은언제든지 옛이그립다고』하는것이잇습니다。 그것은 마음은 늙지안어도 몸은 늙는다는것을 말한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음은 안늙는데 몸은늙는가 하면 人生의體內에잇는 生殖線『홀몬』(內分泌)이 減退하기때문이외다 體內에 弱力한生殖線『홀몬』을 補給하면 六十이나 七十에도 精神、肉體共히 恒常靑春時代와갓다는것은 벌서 全世界의 醫學界에서 共認하는바이니 이제 새삼스러이 說明할必要가업는줄압니다

靑春과性慾

靑年은 一國家나 全世界를勿論하고 社會構成上重大한 要素가되는것과가티 靑春에잇서서 性慾도 또한重大한要素인것을 알어야됨니다 性慾의 減退 또는 性慾過勞로 恒常煩悶하는것은 靑年時代의重大한 大問題입니다 人生에잇서서 最大幸福을 맛보아야할靑年期에 性慾減退나 또는 房事過勞 早漏 勃起不能으로恒常鬱鬱히지내며 恒常最大 不幸에빠저 世上을呪咀하며 悽慘한生涯를 눈물로보내는 人生들이 얼마나만슴니까 이런事實은 各自個人에게도 悲哀의極致이러니와 國家나 社會에잇서서 到底히그냥이지못할 重大事實입니다 男女의 其神聖한愛情을 모르는사람에게 무슨 社會的事業을 할수잇겟습니까? 全世上事는 모도다 異性의따뜻한 愛情에서부터 一家를 建設하게되고 國家를建設하게되여 社會를이루는것입니다

老年과性慾

사람의 늙는것은 生死線『홀몬』(內分泌)의 缺乏으로 因함이란것은 世界醫學界에서 共認하는바입니다 그러니까『홀몬』이 缺乏하면 할사록 人生은 늙어서 마음은 그러치안치만 몸은늙게됨니다 特히 우리東洋사람은 더甚합니다 四十이나 五十만되면벌서 늙은이行勢를 하게됨니다 그것은 體內에 生殖線『홀몬』의 減退로 因함이며 同時에 異性의단맛을못보게됨으로 恒常寂寂히 지내게됩니다 西洋사람을 보십시요 四五十에 結婚을하는사람이 얼마나 만흔가를! 이것은 外國사람은 平常時飮食物을 注意하야 攝取하는것도 原因이겟지만 生殖線『홀몬』劑를 隨時服用하야 體內에『홀몬』이 適當히 充滿하야잇는까닭입니다

性慾減退와房事過度의疲勞症

性慾減退와 房事過度로서 오는疲勞는 萬病의根原이되고 萬事의 敗退者가되는것을 이저서는 絶對로 안됨니다。 性慾減退는 即다시말하면 體內에 生殖線『홀몬』의 缺乏으로因함으로 怠慢하여지고世相事가실어짐에따라 事業이손에안붓고 失敗하게됨니다。 또房事過度로因한 疲勞는 이것이야 참말 病中의難病으로 毎日頭痛은甚하고 氣運은업고 煩悶症은 생기고하다가 乃終에는重病에 점점몸이잠겨서 家庭은 破滅케됩니다 人生一生에잇서서 가장 幸福히 가장快樂히지낼때에 人生의참맛을모르고 도로혀 煩悶과悲哀로 그날그날을 울게됨니다

其治療法及豫防法

上述한바와가티 人體에『홀몬』이 업스면 各色病이 생기고 早老하게됨니다 이것을 治療할라면 오직 有名한藥과 方法을 選擇하여 節制잇는治療를할것은 두말할必要도업읍니다 只今時代는 徒然히誇大한廣告를하야 患者를迷惑하는길이만으니 百聞이不如一見格으로 爲先自身使用하야效力의有無를 體驗하는것이 第一이니試驗하야보십시요 左記住所에서 其에當한名藥을 分布한다고하오니 實驗해보시요 醫學博士伊藤先生도 實驗推奬한것이라고합니다 (係)

醫學博士伊藤先生推奬

靈藥 トカピアン

トカピアン의偉力

不老靈藥 トカピアン은 眞實로 現代科學文明의 極致의産品으로서 其獨特한成分으로된 藥効에는 놀내지안는사람이업고 한번服用하게始作하면 누구든지 其偉力에 敬服지안는 사람이업다고합니다 其藥을 한알式服用하면 당장에 피가끌어오르며 勇氣와 精力을 내게하고 旺盛한精力을 體內에充備케하는『强力홀몬』을補給하야 體內各部의 榮養을 充實히하며 生殖機能을健全케함으로 老人은젊어지며 靑春期에잇서서는 性慾減退와 悲哀中에잇는 靑春男女는 끌어오르는 異性의幸福感을 無限히맛보게됩니다 藥價는 三〇錠에二圓五十錢 六〇錠에四圓八十錢이라고하며 先金注文은 送料本舖負擔 代金引換은 送料三十錢添加한다고합니다

發賣元 東京漢洋藥學研究所 東京市向島區寺島町五ノ二百十六 振替口座東京三九三一五番

海狗腎

新品到着 德大臣官營

老少를勿論하시고陽氣업서 便秘하서는분이여! 貴下를爲하야 補精脅氣强壯에 神奇神秘한天惠的靈効를가진 樺太廳官營捕獲의品海狗腎이 到着하얏슴니다

明治四十四年 日、英 米露四個國의 條約에基한全世界에唯一한元素! 堂堂한實彈的眞品! 百發百中은이를두고하는말

說明書는請求하시면 無料로進呈함

發賣元 朝鮮釜山府草梁町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電話長一一八二番 振替釜山七九三二番

便紙면은무엇이든지알수잇다

特別景品付大特賣!!

日本一完備手紙大寶典

組合式과新案辭典式의長短을採集한 新時代에適合한新講義를쓴無比의名著

本書は手紙講習會が十數年苦心の結果編著せられたる最新式手紙の寶典なり

二大附録添付あり 第一附録四六判 字くづし辭典 第二附録 願届書き方(一名代書人いらず) 體裁總紙數附録共六百餘頁 縱六寸橫四寸 美華版特製美本箱入

大特價 壹圓四拾錢 送料二十錢。代金引替はハガキ申込次第送料共一圓七十五錢で急送す

無代進呈

實物縮寫 流行型腕巻クローム側時計形磁針計指針正確

大景品 此新聞愛讀者에 限하야 記한後「これは便利」辭典普及宣傳키爲해 上記特別大景品一個씩 無代進呈함 (此景品은書籍과同封包裝하야送함)

發行所 東京·神田·九段三ノ七 振替東京九四四八九番 大誠社書店

理化學用白金器具

金.銀.白金

福

株式會社 石福商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京城版

住宅撤去令流行時代
借地人에大威脅
全仁川的으로組合結成될形勢

【仁川】 금년겨울을 들기시작하야 인천의 주택철거령 소동은 비범하게 성행되고잇다 과반에도 수차보도한바와가티 산근정(山根町)의칠십호의 철거문제 룡강정(龍岡町)의철거문제를비롯하야 욱정(旭町)에일으기까지 철거에대한건수가 서로꼬리를물고 일기시작하야 철거령류행시대를 보이고잇다 근일에일으러 화정(花町)일대의 아파옥(阿波屋)소유토지 주민상백여호에대하야도또다시철거령이나오리라하야 벌서부터 주민측에서는 불안중에싸여잇슬뿐아니라 근자의지주들은 철거하라는것을유일한무기로하야 지료를인상하는것이 부대목적이라한다 이를탈지한주민들은 불일주민대회를열고 전인천적으로 차지인조합이라도 조직하야 지주들의무리한 요구에 항쟁하리라는바 과연신년벽두부터 지주와 차지인간에 여하한 운동이 전개될지도또는 당국자로서는 여하한처단을하야 줄지가 주목되고잇다한다

藤貞、松崎兩氏特志

시내강기정이번지동정시(藤貞市)씨는그의죽은딸의뢰상일을당하야 도립병원에、 시내남산정이정목구번지송기청(松崎淸)씨는그의조모의일주기(一周忌)를당하야돈오십원을사회사업조성회에기부

(극예술연구회 연습광경)

劇藝術研究會에서
今年掉尾의公演
今廿日부터府民館에서三日間

다년간 조선연극계(朝鮮演劇界)를 위하야만흔공헌을하야온극예술연구회(劇藝術硏究會)에서는 본사학예부의 후원아래 이십일부터 련사흘동안 시내부민관대강당(府民館大講堂)에서 재십삼회공연을 연다함은 본보연예면에 루차보도된바어니와 이해를 마금하는 이공연을 좀더빗나게 하고자 동회원 일동은 밤낫을 이어 맹렬한 련습을 계속하고잇는터로 일반의기대도 그만큼 느피가고잇다 그러고 료금은보통오십전, 학생사십전, 이십명이상단체입장에는 매명삼십전이다

그날을 가신히 연명하여나가는 토막민들을 현실으로 세상에가상으로 통의의 재난으로 몰붓칠곳이업서 로상에 방황하고잇서 봉상

裵祥明、金光芝氏의 編物講習會

경성수예연구소(京城手藝硏究所)에서는 금번동기사업으로지난십팔일부터 편물강습회를 교남정(校南町)一二五)동연구소내에 여럿는데 과목은 쉐타,족기,최신아동우바ㅡ부인복,남자복,모자,기와여러가지며 도편물수선법,편물자수법,편물세탁염색법등편물전반에대한것이며 강사되는분은 다년간이방면의 연구를 깁히하야 고명한 배상명(裵祥明)씨와 김광지(金光芝)두분이라합니다 회비는일원 강습시간은 오후한시부터 네시까지 기일은 아직도 만히남엇슨즉 지금부터 입회할지라도 넉넉히따라갈수잇다합니다

職業科講習會

경성부에서는 오는일월사일부터 일월십칠일까지 일해동안 매일 오전열시부터 오후다섯시까지 어의동(於義洞)보통학교에서 직업과(職業科)강습회를 개최하기로되엿다 과목은 목공(木工)과 금공(金工)이며 강사는 어의동 보통학교제일 공동작업장직원이 담당하기로 되엿다

하게 되어업는터인데 영등포경찰서장 이게당(二階堂)씨는 그가련한 정상에 깁히 동정하야 전기 전소된 십삼호리재민에게대하야 지난십팔일 각각금일봉식을 희사하엿슴으로 리재민들은 감격하고잇다

路幅二十八米
第二産業道路
六萬圓에落札起工

【仁川】 건설인천의시기에 처하야잇는 대인천은 금년시월로써 부구역확장과한가지 만단준비를 가하야 명년에들어서는 면목일신의각종시설을 계획하고잇는바 금년년말락미(掉尾)의 사업으로 화정(花町)매축지로부터 일선염색주식회사에 일으는 제이산업도로에대한입찰을 지난십구일오전십일시 인천부에서 시행한바 오만륙천오백원에 중촌조(中村組)에락찰되얏다는데 동도로의내용은 로폭이십팔미돌로써 총연장일백이키로ㅡ에달한다 현재의 경인산업도로의로폭이이십미돌에불과함에불구하고 제이산업도로는 경인도로보다 팔미돌이나로폭이넓게되야 실로에전조유의대도로이라한다

永登浦署長의篤志

【永登浦】 괴보ㅡ지난 설흔날오후 세시반경 시내 도림정(道林町) 일백팔십번지 최학준(崔學俊)집에서 실화되여 십삼호전소 이호반소의 대참사를 이르키엇이 잇섯는데 그들은 모다가난 품파리하는 로동자들로서 그날

編入地農村의
振興을計畫
仁川府農村地域對策

【仁川】 현인천의부구역이 종전에비하야 사배가량 확대하엿다 신편입지는 대부분 농작지이라 일홈만이 인천부이지만 사실에 잇서서는 종전그대로의 농촌을 형성하고 잇슴으로 이를유감으로 생각하고 잇는 인천부에서 부농회(府農會)를 조직하고 종전의 농작물을입선하야 재소와 온실재배등도 서민의 음식물로서의 불가결할각종농작물을 재배케하야경성과인천에 공급케하리라는데이로써 경성인천에 엽저못할 농작지를 형성케할른아니라 양돈(養豚)양계(養鷄)등을 보급시킬예정이라한다

⑧

汎濫하는"大衆的流線型"
大厦關門에沈默의示威

후세에 사가(史家)가잇서 일천구백삼십륙년의 력사를 비평한다면 한마디로 류선형(流線型)이라고나할가…… 거리를달리는 자동차가 류선형이라고하야 괴괴한 모양을 뽐내기 시작한것도 금년부터이며 경부선을 달리는 급행렬차가 바람에 부듸처 빠르지못하다고하야 긔관차를 류선형으로 만들라고 애를쓰다가 채못되여 반류선형(半流線型)이되것도 금년 부산과 하관을 연락하는 배가 금강환(金剛丸)이란 류선형 긔선이되것도 금년이 처음이다

…… ◇ ……

긴장과 속력이 자연히 완화되는일년다든때가 이러하거든 머리가 깨여질듯이 긴장되고 사지가 빠개지도록 『스피ㅡ드』화하는 년말에잇서서리요! 거리를달리는 자동차의 『스피ㅡ드』가 제한속력(制限速力)선을 넘나드는것도 그럴듯한일이거니와 가즌 희로애락을 다 주어실고 거리에 몰밀드시 늘여잇는 자전거군(自轉車群)의 행진은 한눈으로만 보아도 몸서리치는 일이며 류선형의 "클라이막스"이다

…… ◇ ……

그러나 이모든 풍경은 아직도 년말광조의 일면이며 "옹졸이는씨ㅡㄴ"에 지나지못하는것, 하날이 야터보히고 땅이 조바비이는드시 놉고 넓다란 집을 자랑하는 관청, 은행, 회사등등 현관에 움치하야 "침묵의시위"를하고잇는 자전거군의 "스톱" 풍경을보라!

…… ◇ ……

성공도 실패도 길흉도 쓰라림도 이 두 바퀴에 태우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도라다니다가는 서잇는 그들의 이풍경(異風景)! 압흐로 열흘밧게 남지 안흔 금년도 그들에게는 [illegible] 버틈을타서는 이와가티 모혀잇는 그들의 두 큰눈에서는 남모르는 눈물이 고여오고잇는것이다

主婦之友新年號五大附錄の大活況

書店大歡呼!!大賣行!!日本新記錄

販賣는實로旭日昇天의氣勢!! 日本雜誌界記錄突破의大販賣!!大評判!!

「主婦之友」는犧牲的大奉仕版임으로아모리增刷하여도다시賣切되고만다、아즉사지안으신분은賣切되기前에早急注文하시압소서

八百頁の豪華箱入大書籍 花嫁さん全集

お嬢様!!お母様!!

꼭가서해주십시오、이것만읽으시면 훌륭한 조흔新婦가될수잇게됩니다、반듯이 幸福된結婚을하게됩니다、따님들도安心 어머님도安心됩니다、

奥様!!旦那様!!

꼭가서해주십시오、이것만 읽으시면 夫婦間에는 마음이和合되고 圓滿해지며、家內도 歡喜、靑年諸君도良妻를마지할수잇고、무엇이나다조습니다、자ㅡ누구시나속히읽어보십시다、

國寶的豪華附錄 昭憲皇太后十二德御歌色紙

豪華하다할가、華麗하다할가、누구나 아ㅡ그하고 깜작놀래일만큼 훌륭하게되는것이입니다 또한昭憲皇太后陛下의御坤德과더보려 記念할만한名寶입니다 日本雜誌界 空前의大計畫으로 大評判、尾上柴舟、堂本印象、鏑木淸方、小林古徑、前田青邨、菊池契月、松岡映丘의七大巨匠의大傑作、

絢爛豪華小說陣

新連載 傳記小說 胸にひゞく話 (山本有三) 文豪의大傑作!!大熱狂

新連載 ユーモア小說 青春賣場日記 (獅子文六) 明爽!!人氣作家初登場

大悲劇小說 禍福 (菊池寬)

大悲劇小說 子は誰のもの (竹田敏彥)

評判小說 新婚三合脚 (中野實)

評判小說 男の償ひ (吉屋信子)

評判小說 人妻椿 (小島政二郎)

評判小說 薔薇の花 (子母澤寬)

大福運!!參萬參千五百円贈呈の大懸賞

「主婦之友」의大懸賞은公平하고 大饒하다고大評判이며 問題는쉬웁고자미잇서누구나할수잇습니다모조록應募하!!

流行의正絹訪問服、西陣織의正絹띠、三重本桐衣欌、大形鏡臺、寶石入指環을三千點贈呈의大幸運

漫画映画よりモット面白い 新案子供繪本

귀여운아드님께 한번씩주시고 조화하는 결보지요、꼭滋味를붓치고 놋치안는漫畫繪本!! 그림책에또그림잇는寫眞繪本

良緣出世金儲け 幸運獨り占ひ

出世成功蓄金、緣談結婚등까지 누구나 알수잇는 昭和十二年幸運運勢、이幸運을주십시오、놋치면 운은업니、

お嫁様!!お姑様!!青年方!!

어서가서해주시시요、이것을읽으시면 家庭生活이 愉快하고 또愉快하야滋味가津津합니다、남에게 들어보지못한 夫婦의秘密의秘事까지도 다알수잇서大評判입니다。

見ながら作れる料理附錄 カレンダー献立表

이것만잇스면 每日朝夕飯饌에 애쓰지안코 쉽게할수잇는大重寶、또한가령 다ㅡ多用으로大評判。 어느家庭에서든지

大特價 八拾錢 (送料十七錢)

東京神田 振替(東京〇八一)

主婦之友社

產業

淺海干潟地를 積極的으로開發

總面積約七十萬町步中에서 利用은一割에도未滿

朝鮮의 干潟地總面積은 約七十萬町步로 全南의 十五萬町步를 筆頭로 京畿十二萬町步, 平北十一萬町步, 十萬町步以下는忠南, 黃海, 平南, 五萬町步以下는 全北, 一萬町步以下는 慶南等으로 分布되어잇는데 現在 이干潟地의 利用狀態를보면 干拓事業四萬町步, 鹽田一萬町步, 養殖場一萬四千町步밧게는利用되지못하야 總面積의 一割에도 未及하는狀態이며 現在 養殖場은 全朝鮮一千八百六個所, 經營者三萬二千九百二十四人으로 그收穫高는 四千二百二十五萬, 價額二百九十萬二千四百五圓 (以上 十年度調査인바 種目은 海苔岩 海苔, 牧蠣뱅장어 모시조개大蛤等이다

淺海干潟地의 利用開發에 對하야는 產業經濟調査會에서도 重要題目으로 取扱하엿는데 總督府水產課에서는 一個年三萬四千圓程度의 增殖補助金으로는 到底히 六十數萬町步의 未利用干潟地의 開發을 할수업다고하야 明年度부터 各道水產試驗所를總動員하야 이에技術方面을 擔當식히고 水產課에서는 調査立案方面을 擔當하야 兩者가緊密한連絡미테서 干潟地의 積極的利用開發을 圖할計畫이라한다

蟹罐詰三萬箱 三井과賣約

明年四—六月受渡

組合員의 製品委託販賣를 行하고잇는 朝鮮蟹罐詰業組合聯合會에서는 일즉이 東京日本水產會社와의間에 蟹罐의 賣價引上(一箱一圓廿五錢)에對하야 交涉中이든바 東京水產側이 이에應치안흠으로 交涉은 停頓中이엇는데 이번 三井物產과의間에 三萬箱(八打入)의 販賣契約이 成立되어 來年四月부터 六月까지의間에 受渡를하기로되엇다 그價格은 七、八十萬圓에 達할터이다

農振運動에 全面的拍車

農山漁村振興運動은 一時 縮少되리라고 憶測되고잇든바 總督府에서는 그擴充을 重要視하고 農振運動을 擴大强化하야 速히 目的達成을 圖하려고 十二年度부터 本格的으로 進行하기로 되엇는데 爲先 그表示의第一步로서 明年二月十一日의 紀元節을 卜하야 農振運動功勞者表彰式을 擧行하고 다음에 明年二月末이나 三月十一日頃에本運動擴充의 第一線에선 指導者中堅人物 百名을 招集하고 農村問題의 權威者 山崎延吉氏를 招聘하야 計議하기로 內定되엇다 그리고 共勵組合은 明年度七千組合을 結成할方針인데 昭和十八、九年까지에는 全朝鮮의 農山漁村에 六萬組合을 設立시킬計畫으로 農振運動을 全面的으로擴充하리라고 한다

新高山煙草販賣高

【新高山】新高山煙草販賣所 管內는 戶數三千百九十七戶에 人口一萬九千九百六十二名인데 煙草賣上高는 昨年度에 五萬五千六十二圓五十錢으로 一個月平均 四千五百八十八圓 五十四錢인데 今年은 六萬百二十八圓九錢으로 每月平均 五千十一圓五十錢 昨年의 月平均에比하야 四百二十三圓의 增加인바 原因은 付近 鎭山에서 消費가增加하기때문이라한다

襄陽地方에서 優良磁土를發見

中試의試驗結果O·K

日本內地와 朝鮮을 通하야 高級磁器의 唯一한 原料寶庫인慶南河東의 磁土가 多年의 採掘에依하야 漸次로 그包藏量이缺乏을 告하고잇는 此際 江原道襄陽에서 이에代할 優良磁土가發見되엿다한다。

이報道를드른 總督府中央試驗所에서는 그試土를 取하야 分析試驗한 結果 磁器燒成溫度로純白色을 呈하고 耐火度나 粘力도 强大한點으로 河東磁土에지지안는 優良한 磁器原料임을알게되엿다 同所에서는 다시 技術者를 그現場인 襄陽郡竹旺面三浦里에 派遣하야 調査를行한結果 包藏量이 多量임으로 河東土에 代하야 日本內地 各磁器工場에 供給되리라고한다

混迷中이든硫安 反撥氣勢가濃厚

統制施行下의 硫安은 오래동안 混迷를 未脫하든바 十二月中旬以降 果然 買氣를 喚起하야 販賣會社에서는 先物의 賣止를 行하고잇는 狀況인데 昨今의 狀勢는 如左하다

一、豆粕二圓三四十錢、魚粕四圓二三十錢을비롯하야 有機肥料를 中心으로 中旬來 爆騰市勢에入하야 金肥中에서 騰價三圓五十錢이라하면 硫安이窒素成分肥效率當 最底市勢로되어잇다

一、硫安의 國內自給의 밸런스에는 豫想에 反하는것이 만허 相當한 量의 輸入을 行하지안흐면아니될것이다

一、統制法의 公定價格은 實際購買取締할 方法이업스므로 生產會社가 適當하면 需給市勢가 現品薄으로 反撥하고 또今年은 假需要가 一齊히 豬擾되어 實需物 一時에 殺到할 念慮가잇스며 日本內地方面의 氣配가 强하야 四圓市勢出現의 氣配가잇다 이러하야 明春에 肥料價가 暴騰하야 肥料統制法도 有名無實하게되지 안흘가念慮되고잇다한다

叺織機와原料藥 淸州郡에서配給

淸州郡當局에서는 今年夏節의 風水害罹災者 救助對策에 對하야 지난 十日 郡農振委員會를開催하고 善後對策을 協議하얏는데 左記事項을 次回의 委員會(明年一月中旬頃開催豫定)까지 職員의 硏究事項으로하고 郡에서는 다시十二日의 邑面長會議

梧圃平野開墾 收益比前數培

【咸興】咸南永興郡德興面梧圃里平野는 在來로荒蕪地인데 自今爾來로 苫子用菅草와 火木用燃料草를베여슬뿐만 안이엿던것인데今春부터 梧圃住民들이 組合을組織하야 該土地三十萬坪을 于先試驗的으로開墾하야 作畓하야今秋에 비로소 稻作을 收穫해본結果 一萬千圓이란 莫大한 收穫이 잇섯다고한다 그런데 이에對한 收穫內容을 例年荒蕪地收穫時代에 比하야볼진대 該土地每坪收穫을 넉넉히二錢式을 計上한다고 할지라도 三十萬坪잡고 六千餘圓에 不過하든 程度이엿섯는데 其土地開墾後 實收益을 따저보면 每坪錢收益하든곳에서 每坪當七錢假量收益으로 一萬五千餘圓이란收益增加로 前荒茂地 未墾時代에比하면 莫大한 利益으로 明春該地帶의 開墾事業은 매우 有望되는터이라고한다

京畿、黃海地方에 陸地棉獎勵計畫

京畿道는 最北部 漣川郡에서 千一百町步의 大面積의 陸地棉 耕作에 今年成功되엇슴으로 明年은 面積一層을 다시 擴張한 畢竟棉의 陸地棉을 開地에 植付될터이다 이에는 日本綿花栽培協會 水原試驗場 京畿道當局의 中部地方의 綿作方針을 一變하야 早熟陸地棉의 栽培를 獎勵할 方針이라한다

日用商品市況

十九日 京城市內의 砂糖及麥粉市況은 如左하다

▲砂糖 强硬

砂糖은 世界的으로 時勢의 緊調를 示한것과 年末年始의 需要으로 그需要가 激增함보아 日本內地는勿論 朝鮮內의 市勢도 漸次로 强硬하여지는 傾向에잇다 今日 六十斤(百斤)入 一俵의 市勢는 大體다음과갓다

白砂糖	二三、二〇
黃砂糖	二二、〇〇
黑砂糖	二一、〇〇
分蜜糖	一八、四〇

▲麥粉 暴騰

麥粉은 世界各國의 所謂 非常時對策으로서의 食糧準備에 作한 原料小麥의暴騰 特히 그外 主產地인 豪洲丁의 市勢暴騰과 該國의 需要激增으로 因하야 前週에 比하면 二十二錢 三十錢高로 今入一袋에 對하야 三十錢高로 今日市勢는 五圓十錢의 高價를 示하고잇다 其他 비—나스票六圓六十錢, 카메리야票六圓五十錢, 曲馬票六圓四十錢, 赤鶴票五圓五錢零으로 今後도 先高가 豫想되다고한다

全滿洲麥粉消費

大體約四千萬袋程度 六三%는南滿서消費

【新京發商通】從來 滿洲의 麥粉消費高는 一般購買力이 極히 나저서 大體 年消費高 三千萬袋內外로 보이든바 이지음 某專門側의 昨年度의 麥粉生產高輸出入高와 鐵道에 依한 驛別麥粉發着狀態等도 基礎로 調査한바에 依하면 全滿麥粉消費高는 一般豫想의 年三千萬袋보다 훨신만히 大體 四萬袋程度를 示하고잇고 그地理的分布는 大體 南滿約二千五百萬袋로 南滿六三% 北滿三七%의 比例이다

南、北中에서 見本市開催

貿易協會에서計畫

朝鮮貿易協會에서는 十九日午前十一時부터 京城商議特別室에서 理事會를열고 來年度重要事項其他에對하야 協議中인바 其主要한 計畫은 如左하다

▲臺灣、南中見本市

一、主催 朝鮮貿易協會
一、參同 朝鮮總督府
一、後援 鐵道局、各道、京城府 各地商工會議所
一、時日 昭和十二年十月中
一、場所 臺灣、臺北、高雄、香港、福州、上海 (以上豫定)

▲北中東西見本市

一、主催 朝鮮貿易協會
一、參同 朝鮮總督府
一、後援 鐵道局 各道 京城府 各地商工會議所
一、日時 昭和十二年五月中
一、場所 靑島 大連 天津

久留米絣織製를 慶南서積極奬勵

慶南에서는 農家의 副業으로 久留米絣을 奬勵하기로되야 爲先第一次로 昌寧과 密陽에 百臺의 織機를 据付하고 一個年에 二萬五千反을 織製하야 製品은 그의本場인 福岡第二工業組合과 提携하야 賣出할 計畫이라고하며 第一次의 成績이順調로 進行되면 次年度는 第二次計畫으로 다시 三百臺의 織機를 增設하야 그奬勵에 邁進할 方針이라한다

日濠會商大團圓

半歲에亘한激烈한通商戰도 協定成立으로終熄?

去五月二十二日 濠洲政府의 日本織物類에對한關稅의 大幅引上에依하야 開始된 日濠通商戰도 그後半歲로 겨우終幕에 갓가워왓다 最近의外電은 日濠兩國의 主張이 만히接近하야 交涉에當하는 兩國代表者도 會商의 前途를 樂觀하고잇다고傳한다

이通商紛爭의 原因은 말할것도업시 破竹之勢로 全世界의 구석구석까지 進出한 日本商品의 販路를 빼앗긴 英國이 頹勢挽回를 꾀하야 植民地濠洲를 使嗾하야 日本品에對한 關稅引上을 敢行식히게 때문이다 日本으로보면 再昨年春래-샤外相이 親善使節로日本에온때부터 日濠貿易의 調整을 提議하야 今年春頃에는 어떠한 結果를 매즐情勢이엇슴으로 濠洲側이 이러한 態度로 나오리라고는 想像도못하얏든것이엇다 거다가 日本은 每年多額의 入超關係에잇고 特히昨年에잇서서는 一億六千萬圓이나 入超임으로이러한 濠洲의 態度에 憤激하야 이러하야 日本의 通商擁護法의 發動을 보게 되고 濠洲側의 日本品에 對한輸入制限의 實施를 보게되어 激烈한 關稅戰爭은 開始되엇다 그런데 濠洲로서는 羊毛를日本에 팔지안코되면 안되고 日本으로서는 濠洲로부터 羊毛를 사지안흐면 모처럼 發展한毛織物工業을 維持할수업는 不可分的 相互依存關係에잇는 것이다 그럼으로 이러한 不自然한 狀態가 永續할것은 兩國이 잇서서 實로 苦痛이다 九月의羊毛期를 目睫에두고 濠洲當局이 焦燥하는것은 比할데업섯슬것이다。

果然 八月下旬 濠洲當局은 國內牧羊業者의 希望을 容認하야 交涉再開를 提議하얏다 勿論 이때는 多分히 對內的제스츄어를 包含하고잇섯슴은 實情을 無視한 條件을 提出한것으로 察知할수잇슬것이다 卽 九月初의 交涉에 잇서서는 濠洲側으로서는 日本이讓步하야올것을 豫期하고 日本品을 合計八千萬碼로 制限하는案이엇고 日本은 昨年의實績대로 合計一億五千萬碼를主張하얏다

그러나 이때부터 日本村井시도니-總領事와 濠洲側의가랫드關稅條約相과의 間에 濠洲의 首都캔버라에서 交涉은 斷續的으로 行하야왓다 그後 十一月初旬에 이르러 日本側으로부터 羊毛를 四十萬俵살터이니 織物을 一億三千萬碼사라고 提言하야 이것이 端緒가되어 羊毛와 織物을 링크식히는 아—라—·씨스템을 採用하기에 意見의 一致를 보아交涉은 漸次 本格的으로 되엇다 이지음부터 村井、가랫드兩氏間에는 頻繁히 交涉이 되어 今月初大體 다음과가튼 條件으로 兩者가 妥協하얏다고 傳한다

一、濠毛의買收數量을 一年四十萬俵로하고 이에對하야 日本綿布 人絹布를 一億百萬碼가량으로할것(他에 小麥袋用綿布 二千萬碼)

二、濠洲政府는 綿布、人絹布의 關稅를 相當한 程度 引下할것

三、協定期間은 二個年으로할것

等으로 協定調印과 同時에 日本은 通商擁護法의 發動을 解除하고 濠洲側은 雜貨類의輸入制限을 停止하기로 되어잇섯다

그런데 右條件으로 兩三日中에 解決을 傳하든 交涉도 結局에와서 羊毛買付量과 時期에 關하야 濠洲側이 日本은 四十萬俵는 꼭 必要하다는것을 보고 韓? 提出하야 大灣 前述한바와가튼 條件으로 妥協하게되엇다。

協定結果 日濠間의 片貿易이 是正되엇다

羊毛四十萬俵를 링크하는 原則에는 異意가업스나 本期는 나머지 期日이 적음으로 羊毛는 廿五萬俵이면조타 그代身 織物도 그比例으로 減하야달라고 提言하얏다。

이裏意는 日本은 四十萬俵는 꼭 必要함으로 廿萬俵로 하야두어도 結局은 四十萬俵는 사리라고 생각하기때문이다。

日本으로서는 이러한 提言을 들을수는업슴으로 村井總領事가 相對側을 說得하야 大體 前述한바와가튼 條件으로 妥協하게되엇다。

斷續的으로 行하야왓다 그後 十一月初旬에 이르러 日本側으로부터 羊毛를 四十萬俵 ... 크게 讓步되엇슴은 注目할만하다。—(끗)—

大邱府營의 瓦斯供給條例

十七日府會에서決議

【大邱】十七日 大邱府會席上에서 府營瓦斯供給條例를 다음과가티 決議하얏다한다。

第一章 總則

第一條 瓦斯의 供給은 本條例의 所定에 依함

第二條 瓦斯供給에 關한 施設維持는 總히 府에서 此를 施行함

第三條 變災 及 瓦斯工作物의 故障 又는 工事其他不得已한境遇에잇서서는 瓦斯의 供給을 制限하며 又는 停止함을 得함

前項의 境遇에依하야 生한 需用者의 損害에對하야는 府에서 其責任을 負치아니함

第四條 瓦斯의 供給을 受하고저하는者는 府尹에게 請求할事 瓦斯使用의 廢止、休止又는 位置의 變更、增設、修繕及撤去를 行할時도 亦同함

供給을 受할 場所가 借地借家인時에는 請求者는 其所有者 又는 權利者의 承諾을 受함을要함

第五條 本條例의 規定에 依한 需用者의 權利義務는 府尹의承認을 受하고 此를 承繼함을得함

第六條 府의 所有에 屬한 屋內管、瓦斯메—둘、器具及 附屬品은 使用者가 保管의 責을負함

第七條 需用者側에서 瓦斯工事費의 全部 又는 一部를 負擔할 境遇라 할지라도 其施設한 設備는 府의 所有로함

但 屋內管의 境遇에는 此限에不在함

第八條 府尹은 瓦斯管及利用奬勵上 特히 其必要를 認할境遇에잇서서는 使用料를 減免함을 得함

第二章 供給及工事

第九條 瓦斯供給設備에 要하는 材料 器具及附屬品은 總督府로부터 供給함 但 府尹의檢査를 受할時는 府供給以外의 器具及 附屬品을 使用함을 得함

此境遇에 잇서서는 檢査手數料를 徵收함

第十條 瓦斯供給에 要한 本管 枝管及 引込管(瓦斯메-둘入口까지)의 費用은 府에서 負擔하고 屋內管(瓦斯메-둘出口로부터孔口까지)、器具及 附屬品의 費用은 需用者가 負擔함

位置의 變更、增設及撤去의 境遇도亦同함 但 當分間 屋內管에 要하는 費用은 府에서 負擔함

第十一條 導管의 施設이 無한場所에 瓦斯를 供給하기 爲하야 本管、枝管及 引込管 又는 屋內管의 延長을 要할時는 萬一 特種의 事情에 依하고 又는 多額의 費用을 要할時는 其工事費의 一部 又는 全部를 需用者의 負擔으로할때가 有함

第十二條 需用者의 負擔에 屬할 費用으로서 特히 請求가 有할 時는 府尹의 所定에 依하야 此를 月賦로 할수잇슴

前項의 境遇에 잇서서 瓦斯又는 器具의 使用을 廢止하드래도 旣納의 費用 又는 代金은 還付치아니함

第十三條 前條에 依한 器具의 所有權은 代金을 完納할 時는 需用者에 移轉함

第十四條 器具는 使用料를 徵收하고 貸付할수잇슴

第十五條 前條에 依하야 貸付한 器具는 需用者의 請求에 依하야 此를 讓渡함을 得함 讓渡方法及 價格은 府尹이 此를 定함

第十六條 府尹은 屋內管及 器具를 檢査하며 又는 改修를 命할수잇슴

前項의 境遇에잇서서 府尹은 必要에 應하야 需用者로부터 工事費를 徵收함을 得함

第三章 計量

第十七條 瓦斯는 瓦斯메-둘에依하야 計量하야 供給함

第十八條 瓦斯메-둘은 府에서 設置함

第十九條 瓦斯메-둘의 取付位置는 府尹이 此를 指定함

需用者는 府尹의 許可를 受하지안코는 其位置를 移動함을 不得함

第二十條 瓦斯消費量은 每月瓦斯메-둘을 點檢하야 其指針에 依하야 計算함 前月의 檢針과 當月의 檢針間의 消費量으로서 前月의 一月分으로함

第二十一條 瓦斯메-둘의 紛失、破損 又는 故障에 依하야 正確한 消費量을 計算할수업는 時는 最近三月間에 잇서서의 消費量을 參酌하야 府尹이 此를 定함 最近 三月間의 消費量이 無할 時는 適當히定함

第四章 使用料及手數料

第二十二條 瓦斯使用料는 左의 區別에 依하야 此를 徵收함

一月消費量 三十立以下 一立에 對하야 金十一錢五厘
一月分消費量 三十立을 超過하야 五十立以上의 量은 一立에金十一錢
一月分五十立을 超過하야 百立以下의量은 一立에金十錢五厘
一月分百立을 超過하는 量은 一立에 金十錢
一月分消費量十一立未滿 又는 全然히 消費가 無할時라할지라도 最低使用料로서 金一圓二十六錢을 徵收함 但 需用開始의 月에잇서서 使用期限十五日未滿일時는 最低使用料를 半減함事

第二十三條 瓦斯메-둘에 對하야 左의 區別에 依하야 使用料를 徵收함

二燈用 一月 金二十錢
三燈用 一月 金二十五錢
四燈用 一月 金三十錢
五燈用以上은 一燈을 增加時에 金五錢을 加함

第二十四條 府에서 負擔한 屋內管에 對하야 一月一孔口에 對하야 金十錢의 使用料를 徵收함

第二十五條 器具의使用料는 左의 區別에 依하야 此를 徵收함

長期使用의 目的에 供할者는 一圓에對한 價格의 千分의四十五、季節使用의 目的에 供할者는 一圓의價格의 千分의五十 一時使用의 目的에 供할者는 一月에對한 價格의千分의五

第二十六條 器具及附屬品의 檢査手數料는 一個一回에 對하야 金二十錢以內를 徵收함

第二十七條 需用者가 一月以上瓦斯使用을 休止하며 又는全然히 瓦斯를 使用치안을때는 瓦斯메-둘、屋內管及器具의 使用料는 此를徵收치아니함

第二十八條 瓦斯메-둘、屋內管、器具及附屬品의 使用料는 取付又는 貸付의 日이 月의十五日以前일時는 一月分 十六日以後일時는 半月分으로써徵收함

第二十九條 使用料는 每月二十三日期限으로써 納付할事 但 瓦斯의使用을 廢止、休止 又는 瓦斯의 供給을 停止하엿을 때는 隨時納期를 指定함

第五章違反處分

第三十條 需用者故意 又는

雙虹舞 【67】

方仁根 作
金奎澤 畫

기생의마음 (三)

「아무기생이나、부르지」 하고창수는 대답하엿다 상팔은 잠간 생각해보드니

「옳지참 고명월이 한번부르세 자네 놀아밧나」 하고물엇다

「난모르는기생인데—똑똑한가」 하고 창수는 말하엿다。

「똑똑하구말구 내예번 놀아보앗는데—멋지게 놀데 글흉이도 잘알지?」

「알구말구요」

「올봄부터 서울기생이되엿는데 전에는 충청도 시골에서 기생 노릇을햇다나。 그런데 인물이든 가무도 상당하다말야」

「그럼불러보세나 그려」 하고창수는말하엿다。상팔은손벽을처서 『뽀이』를 불러가지고

「저—어조선권번에—아니참한성권번에— 고명월이좀불러」 하고말하엿다。

그들은 이야기하면서 술을먹엇다。 창수는 얼굴이 희고 수염이 까마케난『모던뽀이』의라입이오 상우는얼굴빗이노라코헤멀금하게생기엇다。 얼굴이긴데다가 대머리가、약간 버서저서 럼에서 머리까지가자면 한참걸릴듯이 보엿다。 그는 창수와 전문학교동창이오 지금은 어느회사에근무하고잇다 그밧게 두사람은 하나는 유성기상점을 하는김병국이라는 사람이오 하나는 조팔도(趙八道)라는 사람으로 무직자이다 그는조선팔도강산을 회회돌아다니엇다고 친구들이 팔도라는 별명을 지어불럿다。

그는 나히가 사십줄되엇는데머리를 중처럼 빡빡깍고 추레하니 조선두루마기만 입고다닌다 그는 어느좌석에나 가면팔도로강산 구경하든이야기로 고당으로흥취잇게하엿다。

「팔도—이야기나 한마듸 허치게」하고 상우가말하니 팔도는 우스며

「술먹울땐 술먹어야지 이야기는다뭐란가」하고 말하엿다。

「술먹을때 이야기는 안주라네 그러지말고 하나하게」

「어서 하나하서요」하고 금홍이도 졸랏다。

「글세갑작이 무슨이야기를 하라말야」

「제—기 하든지랄도 멍석펴노흐며 안는다고—째빗사게구네」하고 상우가 소리첫다。

「그럼디운데 시원한이야기나할가? 저—함경북도 삼수갑산—조선서 제일북다이 기류계에는 어떠케도 지독하게 치운지 거기서는 집에불이나서 불꼿이 뻘거케 함할라올으면 그불꼿이 공중으로 올려가다가 그만꼿얼어부러버린다말야—그러면 거기 사람들은 그불꼿얼은것을 똑똑잘러다가 저만주로 아라사로가서 산호(珊瑚)로 팔어먹는다말이지—그래서 그다음엔 일부러 집에불이나 장처가래에다가 불을질러서 그산호를만드는데 아주겨울이면 야단법석이고 그길로부자되사람도 상당히만라는데 그래서—나도 그장사나한바랑해보려고하다가말엇지」

하고 이야기하니 그들은 깔깔우섯다。

「어쩌면 그짓말을 그러케도능청맛게잘하서요」

「불꼿이 얼어붓다니 참말우서운이야기로군」

「자—또하나하서요」

「아니 이야기만하면 거즛말이라고하니 무슨재미로 한단」

「앗따 어서더하나하서요」

팔도는 기침을쿡하고 나더니

「거기서 더북쪽으로들어가면그보다 더신기한 일이잇지오 눈이강산처럼 싸여서 집까지 덥허 버리는구려。 그러니 사람이 통내를 할수업서서 굴을뚤코내왕을 하는데 원체만이오면 래왕도 못하고 겨우리웃집사이에 대사무릉으로 뚤코거기다가 대고전화처럼 말을하지오。 그래서 아침에 이집에서 저집으로 그대롱에다가 입을대고

「안녕히 주무섯서요」 하고말을하면 그말이 가다가 너무추워서 얼어부터서 동글동글한 사탕처럼 되단말요。 어지간히 치운 지방이아니오 —그래이것도 그짓말이란말요」 하고시침을 뚝떼엿다。

그들은 또 깔깔우섯다。

「그런데 고명월이는 오는셈이야 아니야」 하고 상팔이『뽀이』를불러서

「대관절 기생은 뽀이가 집어먹엇나 웬일이야」 하고 소리첫다。 뽀이는 굽실거리며

「네 지금 왓습니다。 사무실에서 권번에 전화를하고 잣가회장을·합시느라고 그럼니다。 곳모서 오겟습니다」 하고 나아갓다。

조금잇더니 『숄펀과』 끄는소리가 낫다。

登錄商標

龍角散

主効

담기침에 담으로항상콜록콜록하고거칠어나서고롱을밧는만성、급성분께

천식에 코르렁거리고숨이잠부터병여요매끌려락망하서고계신분들께

咳嗽頻發 기침이잣고밤잠못이루며또사람들과對談하거에도고롱이신분께

感氣기침 류행성감거로생기는기침、편도선으로이러나는기침等一切에도

肺病기침 肺病、肺癆、肺炎等으로생기는바른기침一切에도특효가잇습

혈담에 담에서넘새나고、피석거는분은계속하야복용하시면특효가잇습

백일해 어린애기들의기침、코중에또특히백일해는회근을업새십시요

홍역기침 홍역은어린애들의생명을좌우하는것이오니특히이기침에특효함

●맛이 향기롭고먹기조흐며●절대로부작용이업고●胃腸에아모故障도 어르키지 안습니다。

三日分 二十錢
四日分 三十錢
八日分 五十錢
十八日分 一圓
四十日分 二圓
六十五日分 三圓

▲全國各藥店에잇습니다▲

本舖 東京市神田區藥島町 藤井得三郞商店 振替東京九一番 電話(67)〇〇八〇·〇二五〇

천·식 담기침

담、거침靈藥龍角散의特長

재신무에는 咽喉압프든것이 鎭定되며 몸全身에 異常하게도 生氣가떠도는것가튼 氣分이 생긴다합니다。 單只一時的으로기침과 천식을鎭定식히는것가튼 他藥과다른證據입니다。

日本最古의호루몬適用劑로서의龍角散

그理由는 龍角散에는 最近에와서야 비로소 떠드는 호루몬劑가 適用加味되여잇는까닭으로 日本서는第一오래쩌부터잇는 唯一한 가장進步된담기침藥이올시다。

肺炎으로變症됨을防止하는作用

이잇슴으로 龍角散을 服用하시고 담、기침、천식을 治療하신분은 全身的으로 回復되는故로 肺炎、肋膜炎、肺結核等으로 變症하기쉬우나 이것을 未然에 防止하게됩니다。

龍角散의完全한包裝